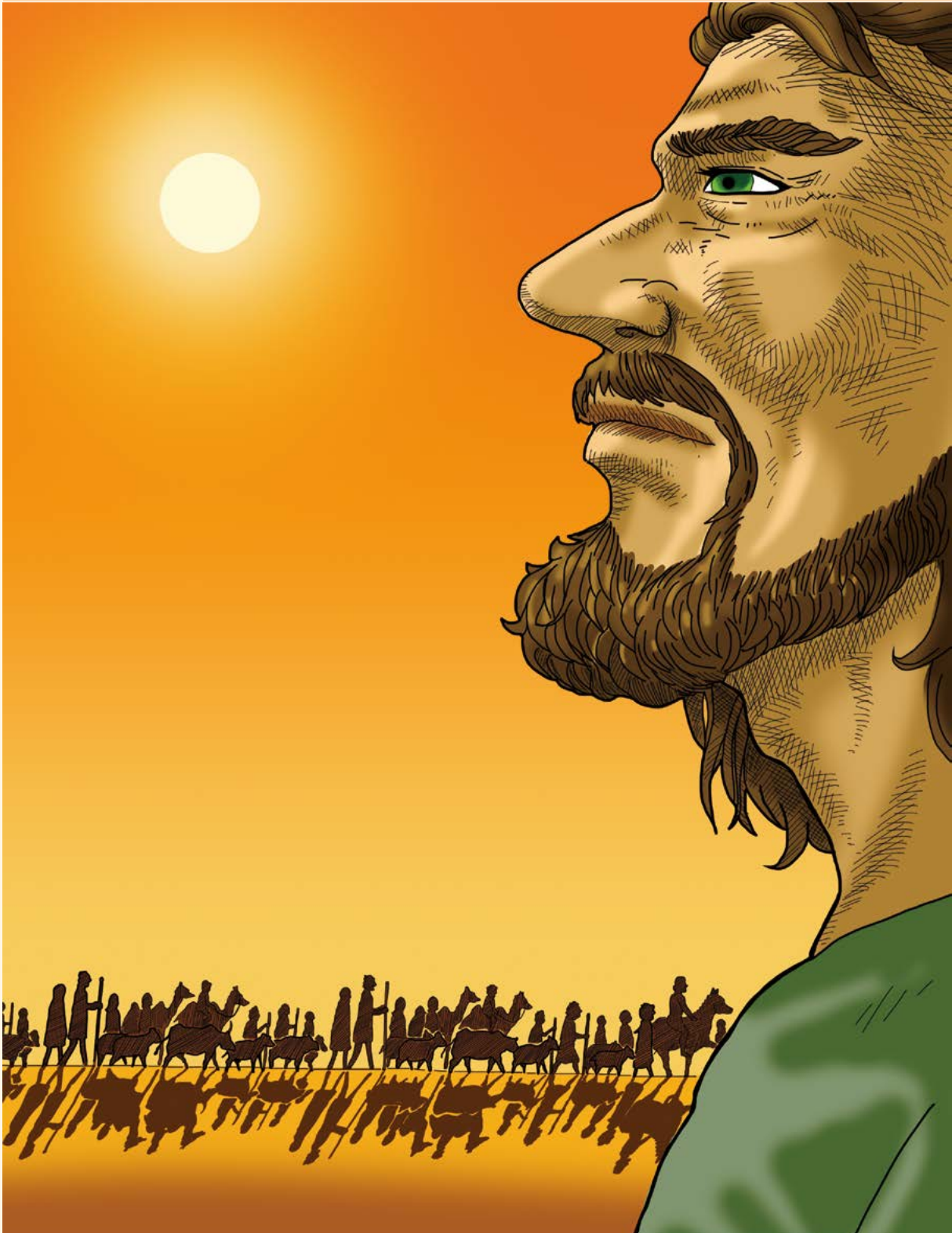


12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1장 27절 ~ 12장 9절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아브람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¹⁾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네 이름을 ²⁾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1) 본토: 원래 살던 땅, 고향.

2) 창대: 매우 큼.

성경 암송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8)

아브람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재산과 하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겜 땅에서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는다’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의 순종



아브람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지 여호수아 24:2절을 보고 적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을 창세기 12:1~3을 읽고 적어 봅시다.

명령

약속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였으며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였을지 적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든 친구들과
친척들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줄도 알지 못했고 잘 모르는 길을
떠나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A large green-bordered box containing a pencil icon in the top left corner and several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다음의 말씀을 찾아 적어 보고 성경 이야기의 주제나 교훈을 적어 보세요.

■■■■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8)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을 좇아 갔고 (창세기 12:4)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찾아 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연결해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로 더불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9)

하나님의 덕을 선전(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1:4)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베드로전서 2:9)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요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종일이는 주일에 교회학교 말씀을 듣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교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반 친구인 지훈이가 종일이의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종일이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간 지훈이에게 따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시작되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친구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나고 지훈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해 주어야 하나,
그래도 혼내 줄까?



말씀이 끝나고 종일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내가 종일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결국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리도후서 5:7)

예 화



믿음과 순종

멕시코에 있는 어느 인디언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 선교사들은 그 인디언들의 언어가 불완전한 언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디언들은 오히려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려는 선교사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나요? 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일부러 나누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란

선생님란